

청년층(20~29세)의 취업애로층 구성

- 2008년 8월 청년층(20~29세)의 취업애로층은 전체 청년층의 15.0%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
 - 청년층(20~29세)의 취업애로층을 실업자와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의 합으로 정의
 - 실업률은 7% 수준을 보임.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개인적인 취업준비 등의 ‘취업준비 비경활(B)’이 청년 인구(20~29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8월 3.6%에서 2008년 8월 6.9%로 증가
 - ‘그냥 쉬었다’는 ‘유휴 비경활(C)’은 2003년 8월 3.0%에서 2008년 8월 3.7%로 증가

〈표 1〉 비경제활동 사유를 고려한 청년 인구의 구성

(단위: 천 명, %)

	2003. 8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29세 인구	7,190.7	7,058.4	6,845.6	6,731.5	6,640.3	6,572.7	
취업자	4,316.4 (60.0)	4,226.6 (59.9)	4,148.4 (60.6)	4,028.8 (59.9)	3,966.7 (59.7)	3,862.0 (58.8)	
실업자(A)	337.4 (4.7)	341.0 (4.8)	331.0 (4.8)	323.7 (4.8)	277.6 (4.2)	290.2 (4.4)	
[실업률]	[7.3]	[7.5]	[7.4]	[7.4]	[6.5]	[7.0]	
비경제 활동인구	육아·가사	779.7 (10.8)	690.3 (9.8)	566.4 (8.3)	527.1 (7.8)	517.1 (7.8)	479.5 (7.3)
	재학·학업	1,078.1 (15.0)	1,040.7 (14.7)	1,028.1 (15.0)	1,062.1 (15.8)	1,109.8 (16.7)	1,154.1 (17.6)
	취업준비(B)	261.4 (3.6)	301.6 (4.3)	344.2 (5.0)	423.7 (6.3)	416.3 (6.3)	450.2 (6.9)
	유휴(C)	215.7 (3.0)	292.6 (4.1)	281.7 (4.1)	253.9 (3.8)	245.8 (3.7)	243.2 (3.7)
	기타	202.0 (2.8)	165.7 (2.3)	145.7 (2.1)	112.0 (1.7)	107.1 (1.6)	93.5 (1.4)
	소 계	2,536.9 (35.3)	2,490.8 (35.3)	2,366.2 (34.6)	2,379.0 (35.3)	2,396.0 (36.1)	2,420.5 (36.8)
취업애로층(A+B+C)	814.6 (11.3)	935.2 (13.2)	956.9 (14.0)	1,001.4 (14.9)	939.7 (14.2)	983.6 (15.0)	

주: 1)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취업준비’임.
 2) 유휴는 ‘그냥 쉬었다’임.
 3) ()안은 청년층(20~29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4) []안은 청년층 실업률(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졸업·중퇴·휴학한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의 청년 취업애로층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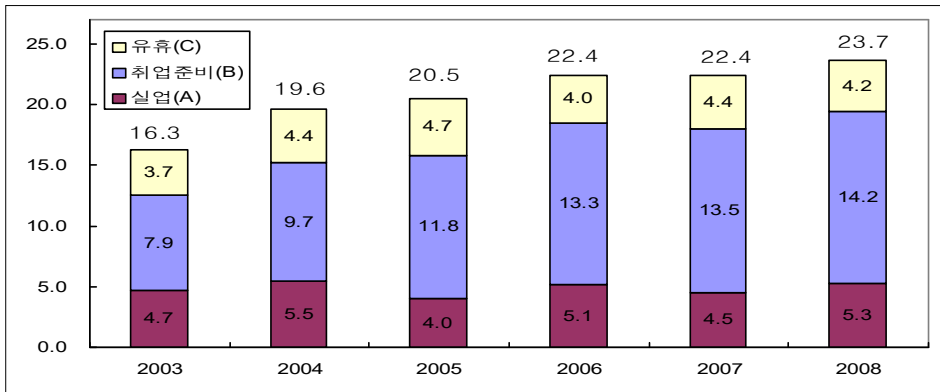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졸업·중퇴·휴학한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인구		1,718.4	1,814.8	1,867.4	1,951.5	1,919.2	1,970.8
비경제 활동인구	실업자(A)	80.4 (4.7)	99.2 (5.5)	75.3 (4.0)	100.0 (5.1)	86.0 (4.5)	104.0 (5.3)
	취업준비(B)	135.5 (7.9)	176.6 (9.7)	219.5 (11.8)	260.2 (13.3)	258.8 (13.5)	280.0 (14.2)
	유휴(C)	64.2 (3.7)	79.9 (4.4)	87.1 (4.7)	78.0 (4.0)	84.3 (4.4)	83.0 (4.2)
취업애로층(A+B+C)		280.1 (16.3)	355.7 (19.6)	381.9 (20.5)	438.1 (22.4)	429.1 (22.4)	467.0 (23.7)

주·자료: <표 1>과 동일.

〔그림 1〕 졸업·중퇴·휴학한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의 청년 취업애로층 비중과 구성 추이

(단위: %)



주·자료: <표 1>과 동일.

○ 4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에 진입 이후 졸업·중퇴·휴학으로 학교를 벗어난 청년층의 취업애로층 구성을 살펴봄.

- 2008년 8월 4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중퇴·휴학한 청년층의 23.7%가 취업애로층임.
- 취업애로층은 2003년 8월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증가한데 기인함.
- 학력이 높을수록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 높아 좋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실업자 감소를 넘어서 노동시장 진입의 애로를 겪는 청년층으로 확장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함. **KL**

(정성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